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중국 시진핑과 성공적인 회담 예상. 회담 불발 가능성도 염두
 - 미국 일부 애널리스트, 이르면 다음 주 FOMC에서 양적긴축 중단 결정할 전망
 - ECB 주요 인사,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 확대 강조. 달러화 부족 가능성도 경고
 - 일본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 총리로 선출.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할 것으로 예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美中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 기술주 실적 경제감 등이 영향
 - 주가 강보합[+0.00%], 달러화 강세[+0.4%], 금리 하락[-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빅테크 중심으로 실적 관련 기대와 우려 교차하며 강보합
유로 Stoxx600지수는 항공 및 방위 관련주 강세 등으로 0.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일본의 경제 정책이 엔화 약세를 초래할 것이라는 평가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8%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내년 금리인하 지속 전망 등으로 하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2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29.1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31.3원, 0.25% 상승). 한국 CDS 강보합

		10/21일	10/20일	전일대비			10/21일	10/2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735.4	6,735.1	+0.00%	국채 금리 10y	미국	3.96%	3.98%	-2bp
	유럽	573.30	572.10	+0.21%		독일	2.55%	2.58%	-2bp
	중국	3,916.3	3,863.9	+1.36%		영국	4.48%	4.51%	-3bp
	일본	49,316	49,186	+0.27%	CDS 5y	한국	24bp	24bp	+0bp
	한국	3,823.8	3,814.7	+0.24%		중국	44bp	45bp	-1bp
환율	달러지수	98.95	98.59	+0.37%	위험 지표	EMBI+	-	288	-
	유로화	1.1600	1.1642	-0.36%		VIX	17.87	18.23	-1.97%
	엔화	151.93	150.75	-0.78%		WTI유	57.82	57.52	+0.52%
	위안화	7.1247	7.1215	-0.04%	원자재	구리	496.6	503.6	-1.39%
	원화	1,427.8	1,419.2	-0.60%		금	4,125.2	4,356.3	-5.3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중국 시진핑과 성공적인 회담 예상. 회담 불발 가능성도 염두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좋은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한국, 일본, 유럽과도 협상을 잘 했는데, 관세가 없었다면 그런 합의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첨언. 이는 고율 관세를 무기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 다만, 시장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며 회담 불발 가능성도 언급. 그러나 이는 단지 사업적인 문제일 뿐이며, 미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훌륭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부연
-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주요 산업개발을 돕는 외국 기업에 대해 보복하지 말라고 경고. 또한 최근 중국의 보복 조치는 외국 기업이 미국 조선업과 기타 핵심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 미국 정치를 흔들고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경제적 강압 전략의 일환이라고 비판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일부 애널리스트, 이르면 다음 주 FOMC에서 양적긴축 중단 결정할 전망

- 로이터에 따르면, ICAP의 라이트슨 애널리스트는 진정한 의미의 유동성 긴축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FOMC가 다음 주 회의를 통해 양적긴축을 종료할 것으로 관측. 에버코어 ISI의 애널리스트들 역시 10월 회의에서 양적긴축 종료 신호를 보내고, 실제 종료는 1~2개월 후에 시행할 수 있다고 분석
- 한편 자이언스뱅크의 시몬스 CEO는 민간부문의 급격한 신용 팽창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특히 신용 팽창이 한 번 시작되면 중간에 이러한 흐름을 멈추기 어렵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권고

■ 미국 백악관, 단기간 내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날 계획은 부재

- 백악관 측은 단기간 내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은 없다고 발표. 특히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사전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2번의 전화 통화 이후 이마저도 취소된 상태. 이에 시장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원하는 바가 달라 러-우 전쟁의 조기 종결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

■ ECB 주요 인사,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 확대 강조. 달러화 부족 가능성도 경고

- ECB의 슈나벨 이사는 주권 강화를 위해 강력한 통화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유로화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한편,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고 언급. 특히 달러화 자금 부족이 발생하면 역내 은행의 대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

■ BofA, 일부 중앙은행의 프랑스 국채 축소 예상. 일부 자산운용사는 해당 비중 유지

- BofA는 일부 중앙은행이 프랑스 국채의 신용등급 강등을 고려하여 비중을 축소할 수 있으며, 해당 규모는 700억유로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 한편, BlackRock과 State Street 등의 일부 운용사는 프랑스 국채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기존의 비중을 유지. 다만 이를 위해 내부 규정을 변경

■ 영국 상반기 차입액, 예상치 상회. 재정 건전성 회복의 어려움 시사

- 정부의 `25 회계연도 차입액 규모는 예상치를 넘어선 72억파운드를 기록했고, 이에 같은 기간 예산적자 역시 998파운드로 의회 예산책임국(OBR)의 2월 전망치(926억파운드) 대비 높은 수준. 시장에서는 재정적자 증가가 영국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어렵게 하고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 일본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 총리로 선출.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할 전망

- 자민당의 다카이치 총리가 465표 가운데 과반을 넘는 237표를 얻어 총리로 선출. 내각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 다카이치 내각은 외교와 국방을 강화하는 '강한 일본'을 주장하며, 경제 정책은 재정지출 확대와 금융완화 등의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 유력 재무상 후보로 거론되는 카타야마 사츠키 참의원은 과거 엔화 절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

■ 국제 금 가격, 큰 폭 하락. 美中 무역갈등 완화 및 달러화 반등 등에 기인

- 뉴욕 현물시장에서 온스당 금 가격은 4082달러까지 떨어지며 장중 6.3% 급락. 이는 美中 무역전쟁 완화 기대, 달러화 반등, 인도의 결혼 시즌 종료 등이 반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21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무살렘 총재 발언, 영국 9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중립금리 상승 추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 블룸버그

(Natural rate of interest foretells US fiscal doom)

- 중립금리 또는 자연이자율이 실제 통화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불확실. 그러나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 관련 논의에서는 매우 중요. 재정적자는 현재 완전고용 여건에서도 GDP의 6%에 이르며, 현재 100% 수준인 GDP 대비 부채는 '54년에 156%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
- 과거에는 중립금리가 낮아 대규모 재정적자 유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 재정적자 확대, 고령화, 脫달러화 등으로 실질 중립금리는 '12년 1.7%에서 '30년 2.8%까지 상승할 전망. 이에 더해 경제 성장도 둔화되면 부채 부담은 더욱 가중. 결국 중립금리 상승과 재정적 안일함이 충돌할 가능성

■ 글로벌 금융안정, 중앙은행 간 공조·과도한 규제 완화 회피 등이 중요 - Financial Times

(The global fight over financial stability)

- 미국 일부 지역은행의 대출 사고 등으로 금융안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여부가 중요한데, 현재 주요 중앙은행의 관련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사안. 일례로 연준과 영란은행은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정당화. 이와 대조적으로 ECB는 규제 강화를 주장
- 금융안정을 위한 주요 중앙은행의 입장이 상이한 상황은 매우 이례적. 또한 일부 중앙은행의 경우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美中 대립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주요 중앙은행의 공동대응 능력이 저하될 소지

■ 일본 다카이치 총리, 증시 반응과 달리 향후 정책 추진에 난항 예상 - 블룸버그

(What Japan's New Leadership Means for Markets)

- 다카이치 총리 취임에 일본 증시는 닛케이225 지수의 사상 최고치로 화답. 이는 다카이치가 완화적 통화정책(저금리 유지), 재정확대(감세, 국방비 증액), 對美 협상력 강화(무역) 등을 통해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
- 하지만, 일본 경제는 여타 선진국이 겪는 막대한 정부부채, 약한 성장,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에 노출. 또한, 의회의 강력한 장악 실패로 주요 법안의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일본은행의 독립적 정책 시행 가능성과 물가상승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감안하면 다카이치의 성장 전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소지

■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미국의 관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 - NYT

(China Has Another Lever to Pull in Showdown With Trump: Factory Lines)

- 美中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제한 등을 통해 강경한 입장 고수. 특히,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도 중국의 제조업 성장은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주요 지렛대로 작용. 이미 중국은 시장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고객 확보를 통해 연초 이후 지금까지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
- 반면, 일부에서는 중국의 제조업 성장세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 이는 수출확대로 인한 각국의 보호무역 전환 등에 직면하기 때문. 다만,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 상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여전해 美中 무역전쟁 우위 선점을 위한 중국의 수출확대 시도는 일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

■ 미국 트럼프, 對中 정상회담 앞두고 협상력 강화. 구조적 긴장은 여전 - 블룸버그

(Trump's hand with China is improving, but enough?)

■ 美中 무역협상, 제한적인 소통 대상 및 경로가 합의 도출 시도를 저해 - The Economist

(The toxic tragedy of US-China trade talks)

■ 미국과 호주의 희토류 협력, 생산 절차 등을 고려 시 중국產 대체에 시일 소요 - NYT

(Can a U.S.-Australia Partnership Shake China's Grip on Rare Ear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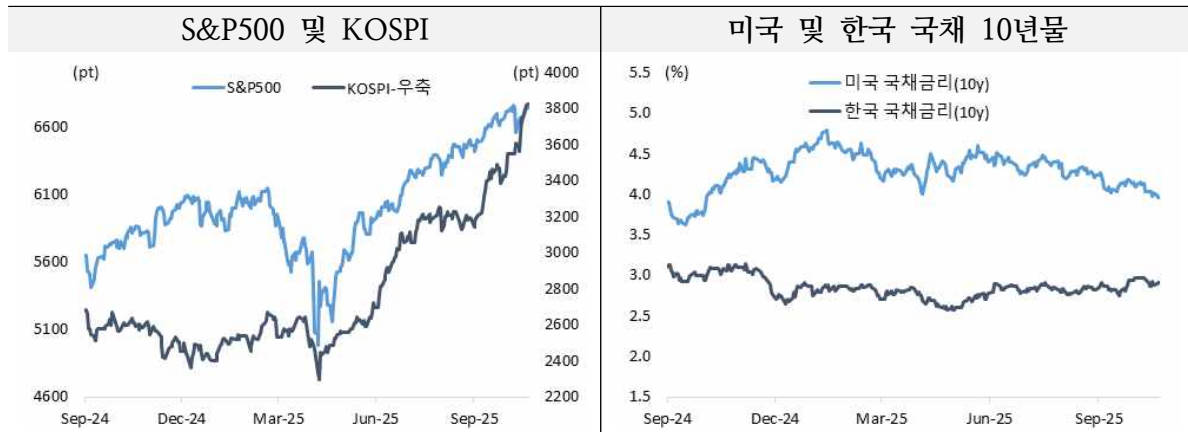
■ 유럽 경기 낙관론, 제조업 성장·경기부양책·역내 불균형 개선 등에 기인 - Financial Times

(What to make of European optim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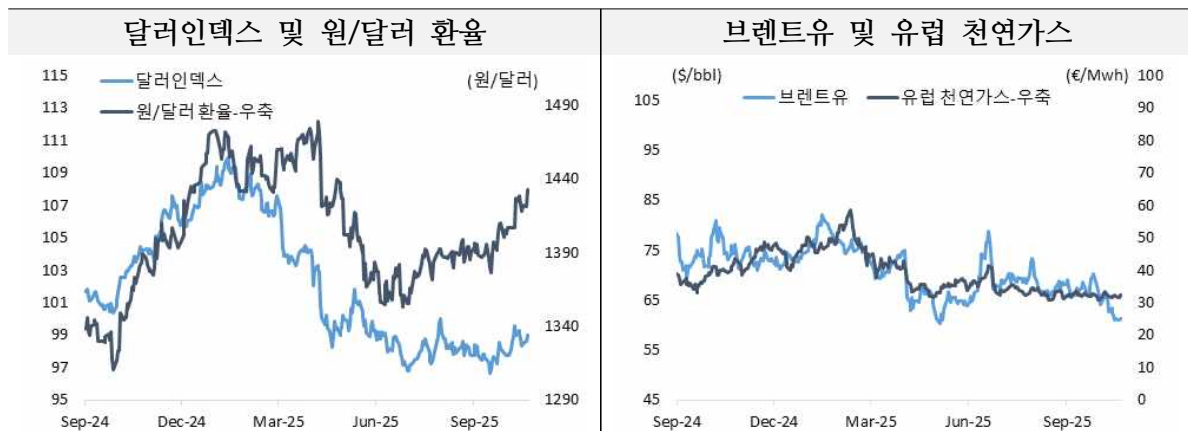
■ 중국 소비자 보조금 제도, 일회성·미래 소비 훼손 등으로 장기 효과는 제한적 - Reuters

(China's consumer subsidy scheme needs a rethink)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